

의 건 서

1. 처리기관 : 경상북도

2.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협상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도록 의결하였다.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협상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 결 의 안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대구시는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구미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대구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우리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의 정부시책사업을 전면 부정하면서 구미의 발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막대한 예산낭비 사업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대안으로 '상생대안'을 제안하며 국토해양부와 대구시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1일 10만톤 규모의 강변여과수, 인공습지 등 '비상취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체수원을 개발하고 이 사업에 경상북도가 협력하고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구미시 의회는 41만 시민과 함께 ‘상생대안’ 협상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북도지사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처럼 전면에서 전담대응하고 창구를 일원화하라.

하나, 경북도지사는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해양부에 공동대응을 선언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체취수원을 개발하여 ‘비상취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대구시는 ‘상생대안’을 수용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하나,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국책사업에 정면 배치되고 지역간 갈등과 주민 재산권 침해 및 구미발전을 가로막는 대구 취수원 이전을 41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1년 5월 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